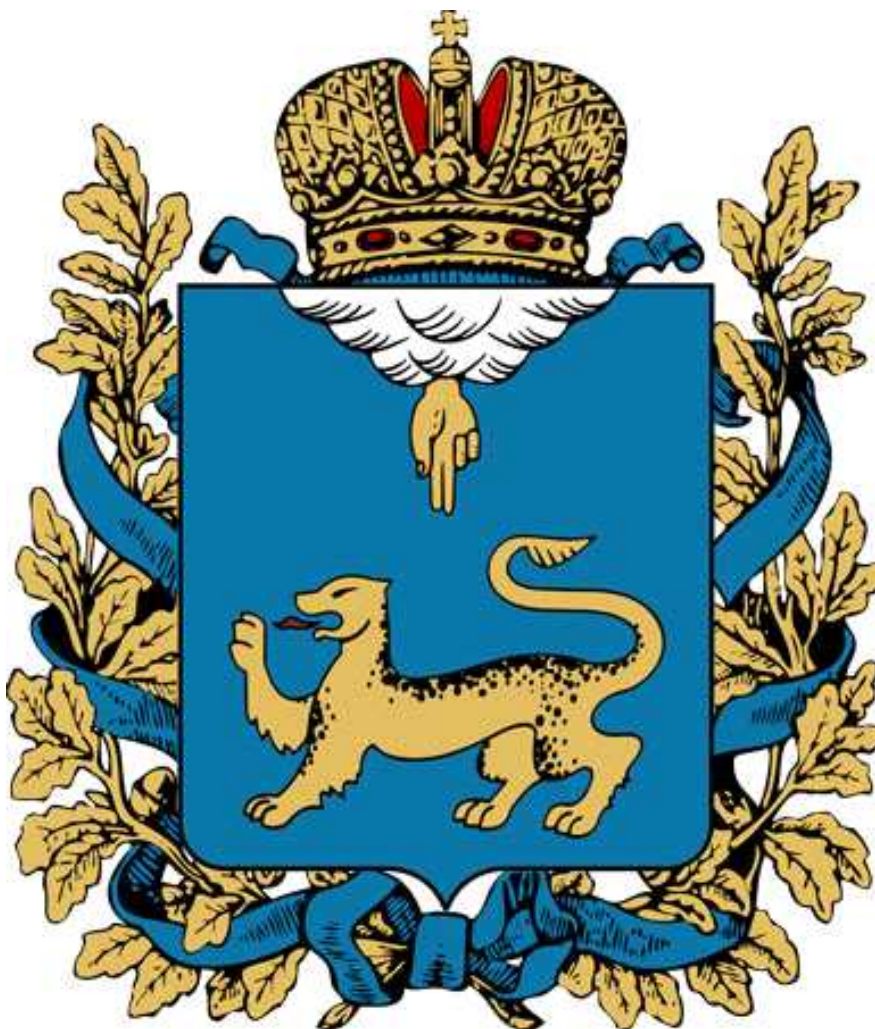


◆ 러시아 정교회의 뿌리
프스코프 州

(П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황연수

목차

1. 일반개관	
1.1 간략개황	
1.2 지리	
1.3 프스코프 행정구역	
1.4 날씨	
1.5 인구	
1.6 민족구성	
1.7 주 상징	
2. 역사 2.1 9~15세기: 기원 ~ 프스코프 공화국	
2.2 16세기~19세기: 모스크바 공국으로의 편입~혁명 전야	
2.3 20세기 이후: 제1차 세계대전 ~ 포스트소비에트 첫 10년	
3. 정치	
3.1 주지사	
3.2 행정부조직	
3.3 주 의회	
3.4 정치성향	
3.5 주변국과의 관계	
4. 경제	
4.1 개관	
4.2 지역총생산	
4.3 산업구조	
4.4 외국인투자 및 전망	
5. 사회문화	
5.1 종교	
5.2 명승지	
5.3 축제	
5.4 주요인물	
6. 한국과의 관계	
7. 참고문헌	

1. 일반개관

1.1 간략개황

[표 1] 종합개관

원어명	프스코프 주 (П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연방관구	북서연방관구
중심도시	프스코프, 벨리키예루키
면적	55,400 km ²
기후	대륙성기후
인구	581,600명 (2024.1월 기준)
공식언어	러시아어
민족구성	러시아인 95% 우크라이나인 1,3% 벨라루스인 1%
종교	러시아정교회
주지사	미하일 유리예비치 베데르니코브
주 의회장	알렉산드르 코토프
주요정당	통합러시아당, 러시아공산당, 정의러시아당 러시아자유민주당, 야블로코 등
지역총생산(GRP)	288,750백만 루블(약 34억 달러)
주요산업	제조업, 농업
실업률	2.3%
평균임금액	55,575 루블

출처: Rosstat 등

1.2. 지리

[그림 1] 프스코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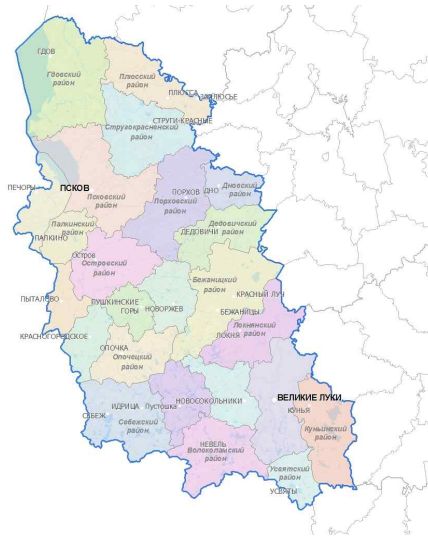
출처: 프스코프 주정부

자연환경: 프스코프 주의 면적은 55,399km²로 남한의 절반 크기이다. 면적 기준으로 85개 러시아연방주체 중 48위에 올라있다. 행정구분 상 러시아연방의 9개 관구 중 북서관구에 소속된 주로서 행정 수도는 프스코프 시이다. 행정 경계로는 동쪽으로 레닌그라드 주, 노브고로드 주, 트베리 주, 스몰렌스크 주와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서쪽 국경에는 벨라루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에스토니아와는 27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 라트비아와는 214km, 벨라루스와는 305km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지리: 프스코프 주는 동유럽평원의 북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낮은 구릉이 펼쳐져있는 지형으로 평균 고도는 해발 110m이다. 프스코프 주 내 3대 고지대로는 북쪽의 루시스카야 고지대, 중부의 수돔스카야, 그리고 남부의 베자니츠키야 고지대가 있다. 프스코프 주 전체 면적의 38%는 산림지대로 이루어져있다. 전체 산림 면적45% 즉, 20,685km² 중 12,135km²는 침엽수림이고, 34.5%, 즉 8,550km²는 활엽수림이다. 이 외에도 프스코프 지역 면적의 10%는 습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침수 지역을 포함한다면 습지대 면적은 프스코프 주 전체 면적의 16%(약 8,500km²)를 차지한다. 프스코프 주의 6%(약 3,310km²)는 담수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약 3,700여 개의 호수가 존재한다.

1.3 프스코프 주 행정구역

프스코프 주는 2개의 시(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와 13개의 도농통합시(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круга), 11개의 자치군(Муниципальные районы)로 구성된다.



2025년 프스코프주 행정구역 구성¹⁾

2025년 1월 1일 기준 러시아 연방의 지방 자치 단체 규약
국가 등록부에 등록된 지방 자치 단체의 수¹⁾

	총합	муниципальные районы (자치군)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круга (도농통합시)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시)	городские поселения (읍)	сельские поселения (면)
프스코프 주	85	11	13	2	11	48

1.4 날씨

프스코프 주는 완만한 대륙성 기후로 겨울날씨는 혹독하지 않으며 여름에는 따뜻하다. 1월 평균기온은 영하 7도이며 7월 평균기온은 17도이다. 평균강수량은 550-650mm이며 눈은 12월초부터 4월 중순까지 내린다.

1) 프스코프 주 통계청, https://60.rosstat.gov.ru/list_of_municipalities (검색일 2025-06-23)

1.5 인구

[표2] 인구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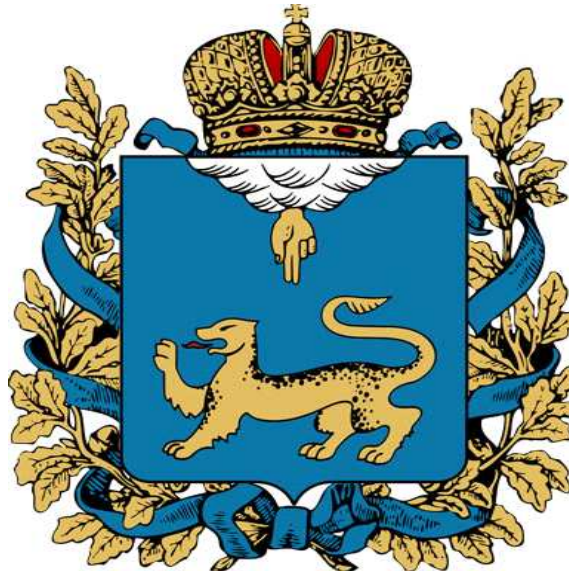
출처: 프스코프 주 사이트

1.6 민족구성

러시아는 다민족 사회이지만 프스코프 주의 경우 2024년 기준 러시아인 비율이 95%로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전체 평균이 80.9%이며 북서연방관구 평균은 86.9%인 것을 고려하면 프스코프 주의 러시아인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15%나 높고, 동일 연방관구 평균보다도 8% 정도 높은 편이다. 러시아인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인 1.3%, 벨라루스인 1%등의 순으로 나타나있다. 특히 소수 민족 중 집시의 수(0.5%)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집시 비율 을 보면 북서연방 관구 중 노브고로드 주 (0.6%)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외에도 에스토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프스코프 주에는 세투라고 불리는 핀란드계 민족이 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핀-우그르계 언어의 하나인 세투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으로 에스토니아 남동부 및 북서 러시아 지역의 원주민이다. 프스코프 주의 세투인은 주로 페초리 군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그리스 정교도를 믿으며 보통 에스토니아 민족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에스토니아는 이들을 소수민족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약 1만명의 세투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주 상징

[그림 3] 프스코프 주 문장



출처: 프스코프 주 사이트

이 문장에 등장하는 표범은 용맹, 용기를 의미한다. 앞발을 치켜세우고 혀를 내밀고 있는 표범의 모습은 바로 적에게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상징한다. 구름으로부터 나온 두 개의 손가락을 모은 손은 신의 보호를 의미하며 왕관은 권위, 권력을 상징하고 푸른색 방패와 리본은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방패를 둘러싸고 있는 떡갈나무 가지는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국경지대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끊임없이 외적과 맞닥뜨려 싸워야 했고 도시를 수호해야 했던 지역의 자기 방어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역사

“프스코프 지역은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러시아 보호자라고 부를 수 있다. 러시아의 많은 주요한 역사들이 프스코프와 연관되어 있다.” [프스코프 주 공식 홈페이지 게재 글 중에서]

2.1 9~15세기: 기원 ~ 프스코프 공화국

프스코프 지명이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한 해는 바로 903년이다. 그 해에 바로 러시아 최초의 국가인 키예프 루시의 첫 번째 슬라브족 출신 통치자 이고리 공이 프스코프의 올가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고리 공이 945년에 드레블란에 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올가는 어린 아들 스바토슬라프를 대신해 섭정을 함으로써 루시의 실질적 군주가 된다. 1137년 추방당한 노브고로드 공후 브세볼로트 므스티슬라비치가 프스코프 공후로 추대되었다. 12세기경 키예프 루시는 여러 공국으로 분열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프스코프는 노브고로드 공화국의 일부로 흡수되었다. 프스코프 지역은 오랫동안 노브고로드의 영향권 아래 있었고 노브고로드와 마찬가지로 프스코프도 베체를 만들며 공화정체제를 발전시켰는데 프스코프에서 오히려 공후의 권한이 더 제한되는 더 민주적인 체제가 발전하기도 하였다.

프스코프는 중세의 강국이었던 리보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해 국가 및 폴란드와 맞닿았거나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13세기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외적의 잦은 침입을 받았다. 1241년 독일 기사단이 프스코프를 함락시켰으나 알렉산드르 넵스키가 페이푸스 호(추드스코예 호)에서 승리하며 전세가 역전되었다. 1242년 독일 기사단을 물리친 넵스키가 죽은 이후 프스코프 시민들은 서쪽의 리보니아 기사단을 막기 위해 리투아니아의 도르몽트 대공을 지도자로 추앙하였고 도르몽트 대공은 1299년까지 33년간 프스코프를 다스리며 리투아니아와 리보니아의 침입을 여러번 막았다. 도르몽트 대공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프스코프를 잘 수호하여 노브고로드 공화국은 1348년 경 프스코프를 독립 공화국인 프스코프 공화국의 수도로 인정하였다. 프스코프는 노브고도르처럼 루시와 서유럽 간 일종의 접경지대로 프스코프 상인들은 에스토니아의 탈린, 데르프트, 라트비아의 리가, 벨라루스의 폴로츠크 등에서 활발히 교역하며 14세기경 러시아 북서부의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2.2 16세기~19세기: 모스크바 공국으로의 편입~혁명 전야

독립 국가로서 프스코프 공화국의 운명은 약 160년 간 지속되었으나 결국 북서지역의 강자로 부상한 모스크바 공국의 바실리3세의 공격으로 1510년 160년간 지속된 프스코프 공화국은 모스크바 공국에 복속되었다.

모스크바에 복속된 이후로도 프스코프는 변방의 요새로서의 역할을 지속하였다. 1558~1583년까지 25년간 리보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전쟁을 벌이면서 프스코프는 외적의 침입을 굳건히 견뎌내어 러시아의 국경을 수호하였다.

1611~1613년 스웨덴 군대는 프스코프 주변의 노브고로드, 라도가, 포르호프를 점령하였고 프스코프로 진격해 왔다. 스웨덴 군인 2달동안 프스코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사상자가 크게 늘면서 본국으로 철수했다. 18세기 초 북방전쟁 시기 (1701~1721)에 스웨덴군이 에스토니아를 지키고 있는 러시아 부대를 급습하면서 프스코프는 중요한 전략적 거점지대가 되었다.

1706~1708년에 프스코프가 전장으로 변하고 프스코프 인근지역에 새로운 요새를 만들었으나 스웨덴 군대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방향을 돌려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북방전쟁 과정에서 러시아 군대가 스웨덴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던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를 점령하면서부터 북서부 국경지대의 전략적 중요한 요새로서 프스코프의 비중은 줄어들게 되었다.

2.3 20세기 이후: 제1차 세계대전 ~ 포스트소비에트 첫 10년

프스코프는 제1차 대전(1914~1918) 말인 1918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독일 군대에 점령되었다. 그 후 1차 대전 직후인 1919년에는 에스토니아가 제정 러시아로부터 독립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를 침공, 프스코프가 5개월 간 에스토니아 군대에 점령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프스코프는 1917년 3월 300년을 지속해온 로마노프 왕가의 니콜라이2세가 퇴위 성명에 서명한(대조국전쟁) 곳이 바로 이곳이다.

2차세계대전 기간에 프스코프는 1941년 7월부터 1944년 7월까지 만 3년간이나 나치 독일 점령하에 있었다. 나치 치하에 있었던 모든 도시들이 그렇듯이 프스코프 주민도 3년이라는 점령기에 강제노동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 특히 크레스티 수용소의 사망자 수는 6만 5천여 명으로 이는 프스코프 시의 인구과 맞먹는 숫자였다.

프스코프에서 독일군이 물러난 직후인 1944년 8월 23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회의는 프스코프주의 창설을 공표했다.

3. 정치

3.1 주지사

[표 3] 역대 지사

성명	재임 기간
소비에트 시기	
레온티 안투페예프	1944.08 ~ 1949.10
겐나디 슈빈	1949.10 ~ 1951.07
미하일 카누닌코프	1951.07 ~ 1961.04
이반 구스토프	1961.04 ~ 1971.11
알렉세이 리바코프	1971.11 ~ 1987.06
유리 포고렐로프	1987.06 ~ 1988.12
알렉세이 일린	1988.12 ~ 1990.10
니콜라이 보로비요프	1990.09 ~ 1990.10
블라디미르 니키티	1990.10 ~ 1991.08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아나톨리 도브랴코프	1991 ~ 1992
블라디슬라프 투마노프	1992 ~ 1996
예브게니 미하일로프	1996 ~ 2004
미하일 쿠즈네초프	2004 ~ 2009
안드레이 투르차	2009 ~ 2017

출처: 송준서, 프스코프 주이야기

1) 예브게니 미하일로프 (1996~2004)

- 1963년생으로 아르한겔스크 출신으로 1991년에 러시아국립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수료했다.
-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소비에트 공산당원이었으며 1993년에 러시아자민들에 입당한다.
- 1996년에 프스코프 주지사로 당선되고 1999년에 러시아자민당에서 탈당하여 2000년도에 조국당에 들어간 후 2000년도 주지사선거에서 재선한다.

2) 미하일 쿠즈네초프 (2004~2009)

- 1968년 튜멘 출신으로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 1995년에 러시아자민당 의원이 되었으며 2004년에 12월 프스코프 주지사선거에서 주지사로 당선된다.

3) 안드레이 투르차(2009~2017)

- 1975년생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2005년 통합러시아당에 입당하며 정치를 시작했다.
- 2007년에 프스코프주에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09년 2월 27일부터 2017년까지 프스코프 주지사직을 맡았다. 당시 러시아연방 주지사 중 가장 어린 인물이다.

4) 미하일 유리예비치 베데르니코브(2017~현재)

- 1975년 3월 7일 생으로 레닌그라드 주 브보르그 출신 통합러시아당 소속이다
- 2001년 레닌그라드 주 브보르그스크 지역구 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 2017년 북서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로 임명되었고, 2017년 10월 12일 프스코프 주지사 직을 맡게되었다.

3.2 행정부 구성

[표 4] 행정부 구성

주 관리	주 위원회
사법관리부	자연환경 위원회
농업, 수의학, 기술관리부	도로 위원회
	보건 위원회
	문화 위원회
주민보호관리부	스포츠 위원회
교통통신관리부	재산관계 위원회
	경제발전 위원회
교육관리부	노동 위원회
	세금 위원회
예산관리부	건설감독 위원회
	문화유산보호 위원회

출처: 프스코프 주 사이트

3.3 주 의회

프스코프 주 의회는 주 정부가 관할하는 문제와 러시아연방이 주 정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는 문제들 사이에서 법적 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프스코프 주 의회는 단원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의 최고 입법기구이다.

당 구성은 통합러시아당 19명, 러시아공산당 3명, 러시아자유민주당 1명, 정의러시아당 1명, 사과당(야블로코) 1명으로 총 26명이다.

3.4 정치성향

소련 붕괴 이후 프스코프 지역의 총선 및 대선 결과를 살펴보면 프스코프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경지대에 위치한 프스코프 지역은 역사적으로 외침을 많이 받아온 지역으로 안보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온 지역이다. 또한 국경지역의 특성상 프스코프 지역에는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따라서 보수적 성향의 군 관련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타 지역보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편이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프스코프 주는 농업 중심 지역으로 1990년대에는 한때 러시아연방 내에서 가장 가난한 10개 연방주체 중에 속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다. 프스코프 지역의 이러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특성은 이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형성하는 주요 근간이 되고 있다.

3.5 주변국과의 관계

3.5.1 스웨덴 및 북유럽

프스코프주는 17-18세기 스웨덴과 잦은 충돌을 빚어왔으나 소련해체 후 서서히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이 프스코프주의 고등교육 체제의 현대화 및 서구식 개혁을 지원해주며,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같이 협업하기도 하였다.

3.5.2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트비아는 91년부터 파탈로보지역(철도 요충지)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였으나 2007년도 러시아의 영유권 인정하였다. 에스토니아는 페초리 지역(지경학적 중요한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1920년 '타투 평화조약'을 근거로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며 지역인들에게 에스토니아 여권을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영유권을 주장을 중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경분쟁 사안이 있을 시 EU 및 NATO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는 독립 이후 러시아인에게 차별대우를 하기도 하여, 한때 러시아가 이중 과세를 부과 하기도 하였다.

3.5.3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프스코프주와 1990년대 중반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00년대 잠시 러시아와 중앙과 석유 관련된 문제가 있었으나 프스코프주와는 관계가 악화되자 않았고, 현재 2017년 프스코프주의 1위 수입, 수출국이다. 프스코프주는 벨라루스에 철강제품 및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며, 벨라루스로부터 유제품, 고기류, 철강제품을 수입한다.

4. 경제

4.1 개관

[표 5] 경제개관

경제규모	북서연방관구의 1.5%, 러시아의 0.18% 차지
GRP	288,750백만 루블 ('23년) *러시아 내 77위, 북서관구 내 마지막
외국인직접투자액	1,320만 달러
실업률	2.3% ('24년, 전년대비 0.3%▼)
평균 임금액	55,575루블 ('24.10월 기준)
수출액	2억 5,635만 달러('21년)
수입액	4억 7,252만 달러('21년)
주요 수출 품목	기계, 장비, 운송 수단, 목재, 종이 및 종이 제 품, 식료품, 식료품 생산 원료
주요 수입 품목	기계, 장비, 운송 수단, 식료품, 식료품 생산 원료, 화학공업 제품
대외무역총액	7억 2,887만 달러 ('21년)

출처: Ros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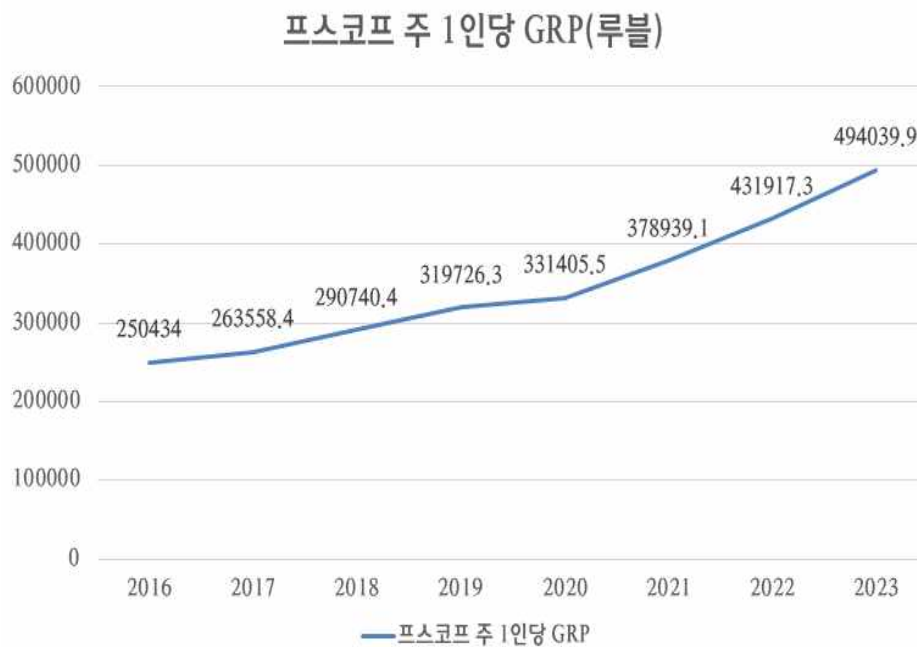
이 지역은 20세기 초까지 농업 중심 경제 구조를 유지했다. 20세기 들어 발생한 제1,2차 세계대전시에 이곳이 독일군에 점령당하는 수난을 겪으며 전쟁 전 150만 명이던 것이 1944년 말에는 겨우 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서유럽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프스코프 지역에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시설 건설을 꺼렸다. 이 때문에 프스코프 지역은 1930년대 소련 전역에 산업화 열풍이 불었을 때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만 1950년대 후반부터 프스코프 지역에 몇몇 산업 시설이 들어섰지만 주로 부품 공장과 같은 경공업 시설들이었다. 이 때문에 소련 해체 이후 부품 조달 체계가 무너짐으로써 각지로부터 부품이 공급되지 않아 프스코프 공장들은 생산을 중단해야하는 상황도 맞이했다. 1995년 프스코프 주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은 5개 주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프스코프의 실업률은 러시아 연방 전체 실업률의 4배가 넘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외국의 새로운 설비를 수입하여 낙후된 기계를 교체하면서 생산성이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월등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직 소련 시기의 산업 생산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최근에 프스코프 주는 국경지대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해외투자, 유치, 교역 중심지 부상 계획을 세워 지역 경제 부흥을 꾀하고 있다.

4.2 지역총생산(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4.2.1 프스코프 주 지역총생산 (2016~2023) 추이



4.2.2 프스코프 주 1인당 지역총생산(2016~2023) 추이



4.2.3 북서연방관구 내 1인당 지역총생산량 비교 (2023)

자치구	1인당 GRP(루블)
네네츠자치구	11,995,394
상트페테르부르크	1,948,244
무르만스크 주	1,714,648
코미 공화국	1,450,357
아르한겔스크 주	1,260,675
볼로고드 주	961,567
레닌그라드 주	943,552
카렐리아 공화국	825,856
칼리닌그라드 주	760,027
노브고로드 주	712,877
프스코프 주	494,040

출처: 러시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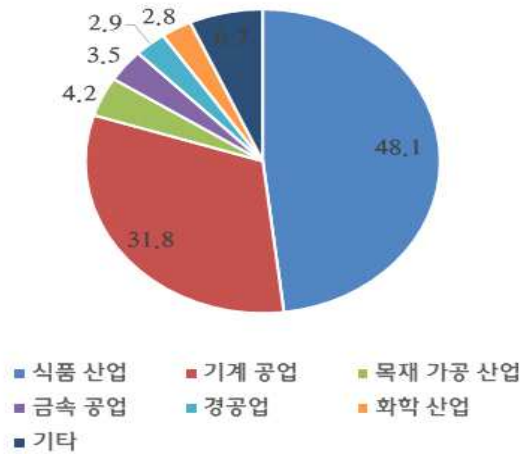
4.3 산업구조

프스코프 주는 러시아의 경제가 낙후된 지역 중 한 곳이다. 프스코프 주 내 산업시설은 주의 대표도시인 프스코프 시와 벨리키에 루키 지역에 2/3이 집중되어 있다. 프스코프의 농업은 아마 재배, 곡물 경작, 채소 재배 등이며, 농업이 주요 경제 산업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 축산업과 감자 및 야채재배, 낙농업이 가장 주도적이며 우유생산은 70%에 달한다. 그 이유는 프스코프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식품도 그만큼 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60여개의 농업회사가 있다. 또한 프스코프 주는 제조업이 주요 산업으로 주요 가공품은 식료품, 전자광학설비, 자동차, 전기장치설비, 섬유제품 등이다.

러시아 북서지역에서 농경 가능 면적의 절반이 바로 프스코프 주에 있다. 따라서 프스코프 주에서 농업은 전통적으로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점해왔다. 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북서 지역 농산물의 1/4정도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었는데 특히 섬유의 원료가 되는 아마 재배와 낙농업이 주요 부문을 차지했다. 프스코프 지역 농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낮은 농업 생산성, 낙후된 농업제품 가공 기술로 인해 경쟁력에서 밀려 이웃 경쟁 국가들(에스토니아, 라트비아)로부터 많은 농산물과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스코프 주 산업구조>

산업 구조



4.4 자원

건축용 자재 석회암, 모래자갈, 백운암, 이회토, 석고, 진흙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가용점토는 2,500만 m², 석회암은 2,700 m², 모래자갈은 1억 720만 m², 토탄(혹은 이탄)은 563만 t으로 329개의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다.

4.5 외국인 투자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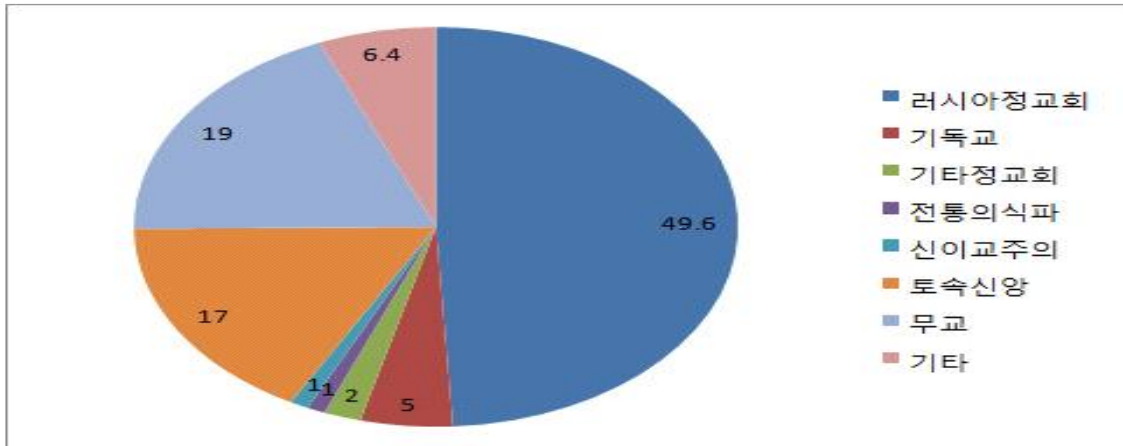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및 라트비아 등 3개국과 국경선이 맞닿아 있어 서방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스코프 지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라트비아와 스웨덴으로 총 투자액의 85%를 차지하며 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다. 그러나 전반적 외국인 투자는 북서 관구 내 타지역과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이다. 바로 모스크바와 발트 해 연안 국가들 간 정치적 갈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대외적인 요인 외에도 인구감소, 낮은 생활수준, 낮은 경제발전 수준, 주 정부의 낮은 예산 확보, 기간시설 부족 등의 내부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프스코프 지역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지원하는 협력 지역으로 육성하여 3개의 산업(운송, 농업, 전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법과 프스코프 지역을 3개 지역(러시아 북서 지역, 발트해 지역, 벨라루스)의 비즈니스와 사회문화적 협력의 구심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발트 해 국가나 EU와 러시아 정부 간 관계가 영향을 주면서 그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학적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다.

5. 사회문화

5.1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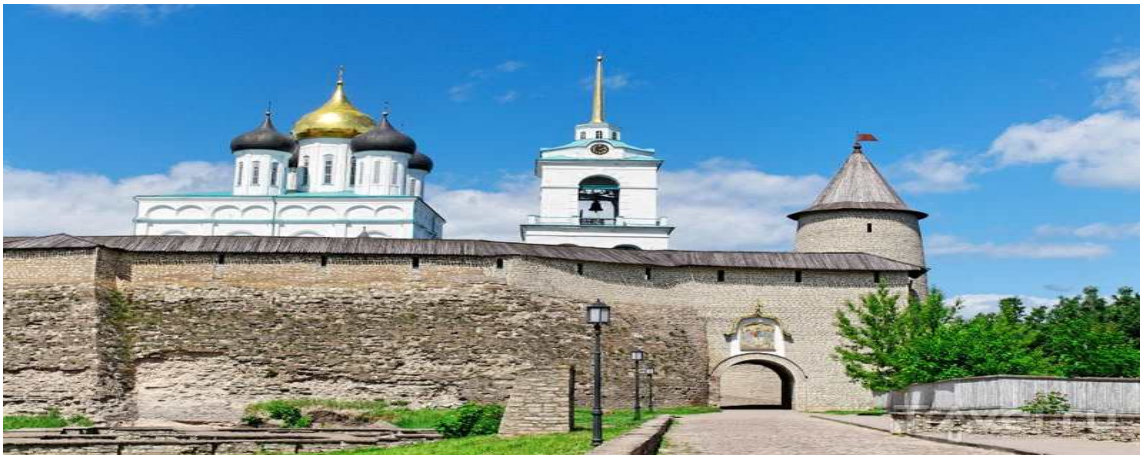
[그림 6] 프스코프 종교 비율



출처: 위키피디아

5.2 명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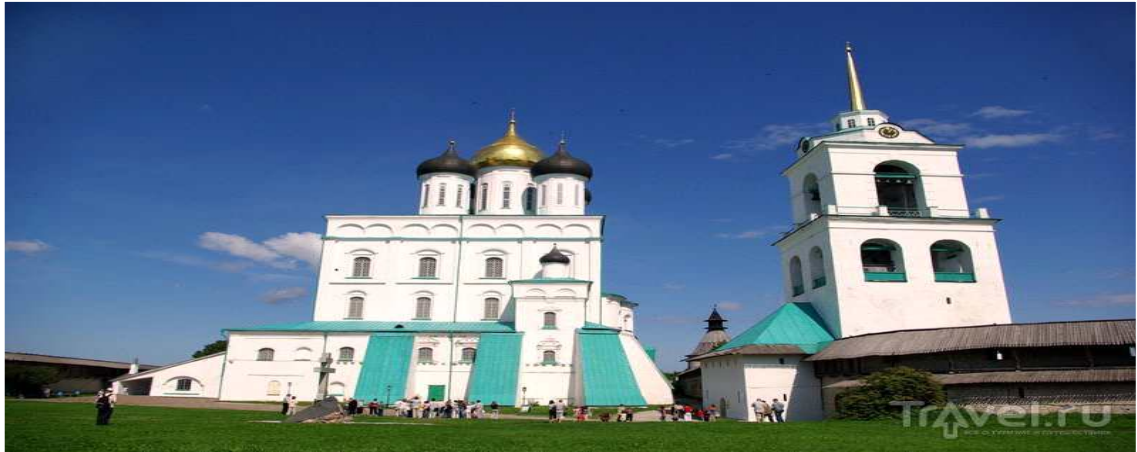
① 프스코프 크렘린



출처: 러시아 여행사

프스코프 크렘린은 역사적, 고고학적인 중심지이다. 10~12세기에 첫 요새가 세워졌다. 크렘린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큰 요새 중 하나이며 야외박물관이 있다. 크렘린과 마찬가지로 프스코프에는 성삼위일체 사원이 있는데 첫 번째 사원은 10세기에 올가 공후의 명으로 지어졌다.

②미로스크 수도원



출처: 러시아 여행사

러시아의 가장 오래된 수도원 중 하나로 프스코프의 문화생활과 학식의 중심지였다. 미로즈강가의 수도원건설은 그리스장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수도원은 장서와 이콘제작소등으로 유명했다. 또한 이곳에는 수도원의 벽을 장식하는 몽골지배시기 이전의 벽화들이 보존되어 있다.

③푸쉬킨 산



출처: 러시아 여행사

프스코프 주의 마을로 지명그대로 푸쉬킨 산은 푸쉬킨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푸쉬킨은 오랜기간동안 유년시절과 성년시절을 이곳에서 보냈으며 1824년부터 1826년까지 미하일롭스크에 유형에 처해있었다. 스바또고르스키 수도원 (Святогорский монастырь) 에는 푸쉬킨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다.

5.2 축제

① 전러시아 마슬레니차



출처: Yandex

매년 프스코프에서는 전러시아 마슬레니차 행사가 진행된다. 오래된 역사와 러시아 정신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프스코프 지역은 전러시아 마슬레니차 행사의 중심지가 되곤 한다. 행사 때는 마슬레니차 몸싸움, 불 쇼, 삼두마차, 무료음식, 호로보드(러시아 전통민속춤) 등을 경험할 수 있다.

② 국제연극축제



출처: Yandex

매년 2월 위대한 러시아 작가 기념일에 행해진다. 이 행사는 1994년에 푸쉬킨의 작품집 연극 상영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③ 철의 도시



출처: Yandex

역사 축제로 고대 루시의 북서쪽 국경지대였던 이즈보르스크 (Изборск)에서 열린다. 매년 이틀동안 중세기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수공업자의 작업, 전쟁을 재현하는 역사캠프가 진행된다. 러시아, 발트해 국가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의 전쟁-역사 관련 클럽들이 참가한다.

④ 대장장이의 날



출처: Yandex

프스코프는 항상 지역 내의 대장장으로 유명세를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러시아의 대장장이의 수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매년 열리는데 프스코프의 대장장이들이 이 행사의 주체이다. 그들은 손님들에게 자신들의 작업 노하우를 공개하며 대장장이들이 철로 만든 특이한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

5.3 유명인사

①올가 Ольга (945-962)



러시아 최초의 여성 통치자이자 블라디미르 대공의 할머니이다. 그녀는 키예프 공국의 세 번째 공후였던 이고리와 결혼하였다. 이고리 공후는 945년 슬라브 종족 중의 하나인 드레블란 족에게 조공을 건으러 원정을 떠났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고리공의 아들인 4살의 스바토슬라프를 대신해 공국을 통치하게 된다. 러시아연대기에서 올가를 가장 현명한 여인이라 묘사했을 만큼 러시아 땅을 훌륭하게 통치하였다. 올가 여공은 러시아인 중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으로 현재 러시아 정교회에 의해 성인으로 추앙되고 있다.

출처: Yandex

② 블라디미르 스바토슬라비치 Владимир Святославич (955년-1015년)



키예프 대공 스바토슬라프의 아들로 삼형제간 싸움에서 승리하여 키예프 대공이 되었다. 변경의 동 슬라브족과 인접민족을 토벌하였고, 남쪽의 유목민과 폴란드의 공세 간섭에 잘 대처하여 국가를 튼튼히 하였다. 988년 그리스도교를 러시아의 국교로 제정하였고 그 때문에 후세에 성공(聖公)이라고 불리며 러시아 역사에서 영웅적인 인물로 추앙받는다.

출처: Yandex

③필로페이 Филофей (1465-1542)



16세기 경에 모스크바가 기독교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3로마설을 창시하였다. 첫 번째 고대 로마는 주민들이 이단을 신봉했기 때문에 멸망했고 두 번째 비탄진 제국의 수도 콘스탄타노플의 주민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교도인 투르크족에게 멸망했다고 주장하며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모스크바에 부여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 이론은 당시 러시아 영토의 지배자로서 모스크바 대공의 정치적 권리를 정당화시켜주는데 일조하였다.

출처: Yandex

④ 모데스트 페트로비치 무소르그스키 Модэст Петрови́ч Му́соргский (1839~1881)



출처: Yandex

유명작곡가로 미하일 글린카의 뒤를 이어 러시아의 국민 음악 운동을 추진하였다. 작품으로는 《성 요한의 민둥산의 하룻밤》, 《전람회의 그림》이 있다. 그 외에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하반쉬나》, 《소로친스크의 시장》와 가곡집 《죽음의 노래와 춤》, 《아이들 방》 등이 있다.

⑥ 푸쉬킨 Пушкин,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1814-1837)



출처: Yandex

푸쉬킨은 모스크바 출신이지만 프스코프 주에서 유년, 성인 시절을 보냈고 농노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시를 썼고 전 러시아를 반란의 시로 넘치게 만든 죄목으로 푸쉬킨의 어머니 영지가 있는 프스코프 인근의 미하일롭스코예에서 유배시절을 보낸다. 이곳에서 100여 편의 시와 문학작품을 남겼는데 그중 보리스 고두노프와 같은 드라마도 있다.

6. 한국-프스코프 관계

▶ 1990년대 초반, 삼성전자와 프스코프 지역 합작투자으로 시작된 한-프스코프 관계

1992년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티트킨 산업장관은 서울을 방문해 한승주 상공부 장관과 삼성, 대우 등의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합작 투자 사업을 통해 러시아 통신 및 전자산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온 것을 시작으로, 삼성은 러시아 북서부의 프스코프 자동전화 스테이션 공장과 합작, 디지털식 시티 폰 스테이션을 생산하는데 3천8백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 1994년 러시아의 프스코프주에 신형교환기 SDX-100 2만회선과 항온항습기, 시험장비 및 설치공사 등을 수출하기로 프스코프 주지사와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 2009년, 한-프스코프 협력 지속

2009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러시아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러시아 중소기업 국제화 연수'를 6월 15일부터 4박5일간 실시하였다. 이 연수는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체결한 '한국-러시아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공동사업' 업무양해각서의 첫 번째 사업이다. 연수단은 대한상의-러시아지방상의 간담회, 러시아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세미나, 지식경제부 방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부산 신항만 방문, 부산시 방문 등 민관 중소기업 지원체계와 산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러시아지방상의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 김상열 상근부 회장 등 대한상의 측 인사와 블라디미르 후보프 러시아 프스코프 상공회의소 회장, 유리 마투쉬킨 우랄 상공회의소 회장 등 러시아 측 10여 인사가 만나 중소기업 실질협력을 논의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나라 71개 지방상의와 러시아 171개 지방상의간 협력네트워크는 양국 경제뿐 아니라 문화 사회 교류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양국 상의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후보프 프스코프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연수가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과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양국 중소기업간 실질협력분야를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프스코프국립대·DABAI 산학협력 MOU 체결

러시아 프스코프 국립대학교와 한국 기업 다바이사는 상호 우수 인재 채용에 관한 업무협약 MOU를 2013년 10월 31일에 체결했다.

다바이사는 러시아 프스코프 국립대학교를 졸업하는 우수 인재들과 러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 사이에 가교역할을 담당해 프스코프 대학교 졸업생들에게는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기업에는 안정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MOU 체결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해당 지역 신문에도 자세히 소개가 됐다.

▶ 2020년, 권동석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가 프스코프를 방문하며 한국과 프스코프는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 진출업체

프스코프에는 2012년도에 현대차 1차 밴더인 유라 코퍼레이션이 진출했다. 유라는 프스코

프와 이반고로드 두 도시에 진출해 상트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 와이어링 하네스와 전장 제어 모듈 등을 납품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1차 벤더였다. 현재는 현대차 인수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참고문헌

프스코프 주 사이트 <http://www.pskov.ru/>

러시아 통계청 <http://www.rosstat.ru>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사관

<http://rus-stpetersburg.mofa.go.kr/korean/eu/rus-stpetersburg/main/index.jsp>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 <http://hk.rus.or.kr/>

러시아 여행사 http://guide.travel.ru/russia/pskov_region/

위키피디아 <https://ru.wikipedia.org/>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송준서, 『프스코프 주 이야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2)

동아일보 <http://www.kinds.or.kr/> (검색일 2015.05.17.)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851095> (검색일 2015.05.17.)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61510082343677&outlink=1> (검색일 2015.05.17.)

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4907>
(검색일 2015.05.17.)